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S&P, 일본 신용등급 하향 조정, 보험사도 부정적 강등

-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S&P는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‘안정적(stable)’에서 ‘부정적(negative)’으로 하향 조정함.
 - 하향조정 배경으로 현재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일본의 국가부채 수준이 심각하며, 지난달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으로 인한 복구비용 증가로 일본 정부의 채무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.
 - 특히 동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비용이 20~50조엔에 이를 것으로 보여 2013년까지 일본 정부의 재정적자가 당초 예상치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.
 - 이에 S&P는 일본정부가 재정적자 완화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013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145%에 이르는 재정상황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등급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임.

- 현재 일본의 정부부채는 GDP 대비 204%로 재정 불량국인 그리스(137%)와 아일랜드(113%)보다 심각한 수준인 가운데 내년에는 210.2%로 높아질 전망이다.
 -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은 2001년까지 26년 동안 트리플A(AAA)였으나, S&P가 금년 1월에 일본의 재정적자를 이유로 신용등급을 ‘AA+’에서 투자등급 중 상위 네 번째인 ‘AA-’로 하향 조정한 바 있음.
 - 이미 지난 2월 신용평가기관인 미국의 무디스도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‘안정적’에서 ‘부정적’으로 하향 조정한바 있음.

- 이와 함께 S&P는 일본의 8개 보험회사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도 ‘안정적’에서 ‘부정적’으로 동반 하향 조정함.
 - 일본 보험회사들의 영업과 자산 대부분이 일본 국내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반영해 하향 조정한다고 밝힘.

(bloomberg 4/28, 산케이Biz, 4/28, 니혼게이자이 4/26 등 뉴스 종합)